

12 2018 DECEMBER

굿모닝인천
300
INCHEON MONTHLY MAGAZINE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300호를 맞았습니다.
만 인천 시민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세요.

Since 1994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
인천광역시 종합 매거진
INCHEON MONTHLY MAGAZINE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300호를 맞이하여 인천 시민 50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이벤트

<굿모닝인천> 모바일북
www.mgoodmorningincheon.co.kr을 통해
설문에 응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 2018년 12월 1일~31일



COVER STORY
Retro? Newtro!

인천의 역사는 깊다. '오래된'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법으로, 우리시는 개항이 아닌 '재발'을 택했다. 새로운 미래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1883년, 10미터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바닷길. 인천 내항이 시민의 힘으로 제2의 개항을 맞는다. 사진은 내항이 내려다보이는 웰미산 정상에서 '시민의 바다'를 되찾기 위해 내항 답사를 기획한 문화기획자 고경표(좌) 씨와 재생건축가 이의중 씨.

표지 사진 류정현



답동성당 내부

내일을 위한 기도

답동 골목길을 따라 언덕에 오르면 답동성당(사적 제287호)이 있다.
1897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자 인천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성당이다.

파란 하늘 사이로 성당 탑 위에 솟은 십자가가 선명히 빛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매일 정오와 오후 여섯 시면 이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으로 다다랐다.

답동성당, 내리교회, 성공회 내동교회...
인천에는 우리나라 종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오래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많다.

그 안에서 기도한다.
다난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내일 더 행복하기를.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12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장훈(미디어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 편집장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 미소 책장에 차곡히 쌓인 <굿모닝인천> 외
- 06 아듀 2018 인천 밤 풍경
- 10 2018년 돌아보기 내일을 여는 인천
- 12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⑫ 인천 내향
- 16 <굿모닝인천> 300호 특집 시민과 함께 / 축하 메시지 / 창간부터 300호까지 / 독자 사연
- 26 연말 특집 동네 빵집 탐방
- 30 인천 VS 세계 도시 ⑫ 인천아트플랫폼 VS 가나자와시민예술촌
- 34 구도 인천 와이번스 2018 한국시리즈 우승
- 36 얼굴 좀, 봅시다 ‘히스토리 너머 스토리’ 유동현
- 38 문화 캘린더 옐로우 스트링 보이즈 ‘재즈 스트링 콘서트’ 외
- 40 문화 ‘잘 가요 2018’ 연말 공연
- 42 시정 뉴스 전국 최초 ‘치매안심학교’ 개교 외
- 44 인천경제자유구역 뉴스 IFEZ 스마트시티 기술, 중남미 수출길 활짝 외
- 46 의정 뉴스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외
- 48 컬러링 인천 300만 인천 시민, 300을 찾아라!
- 51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지역 정서를 담다- 소성주
- 52 Info Box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외
- 58 인천의 아침 인천 인구 300만, <굿모닝인천> 300호
- 59 인천 사는 나무 남동구 구월동 회화나무



06



12



16



26



34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 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실 T.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미소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www.weibo.com/incheon)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벌써 3년,
책장에 차곡히 쌓인
<굿모닝인천>

독자 박남형 미추홀구 송의동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굿모닝인천>을 처음 접하고, 그때부터 정
기 구독자가 됐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차마 버릴 수가 없어 모으기 시작하
니 벌써 3년. 책장에 꽂힌 <굿모닝인천>을 볼 때면 옛 추억이 떠오르고,
우리 이웃이 사는 모습도 알 수 있어 겨울밤도 적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구 내동에서 태어나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자랐습니다. <굿모닝인
천>이 용현동에 개관한 토지금고마을박물관 기사를 다뤘을 때 얼마나 반
가웠는지 모릅니다. 평소 걷기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터라 지난봄에는 <굿
모닝인천>에서 소개한 둘레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송도 석산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한 드라마를 촬영했다죠. 과거에는 염
전이 있던 곳입니다. 어릴 적 조개 잡고 낚시하던 곳으로 젊은 시절에는
돌을 캐러 다녔습니다.
시도염전에서 일하는 어르신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2년 전부터 저도 소래
포구에 있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습지공원에
염전 체험장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원도심은
신포국제시장 일대를 제하면 쇠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잘 조성된 개항
장거리와 동화마을을 본보기 삼아, 다른 원도심도 옛것을 없애지 말고 잘
살려 도시를 재생하길 바랍니다.

<굿모닝인천>에 바라는 점은 시민기자 제도 등을 도입해 좀 더 다양한 기
사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
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길 바랍니다. 계속 각 시도에 <굿모닝인천>을 배
포해 인천의 매력을 더 널리 알려 주세요. 뒤에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굿모닝인천> 300호
인천 시민이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축, 300번째 굿모닝!

<굿모닝인천> 300호를 축하합니다. 지난 여름호 <굿모닝인천>을 읽고 가족들과 강화도로 루지를 타러
갔었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며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굿모닝인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인천을 알고 좋은 소식을 얻길 희망합니다.
- 김민선 남동구

행복도시 인천을 바라며

300호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처음 <굿모닝인천>을 정기구독하게 되었
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인천의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 이숙희 남동구

내겐 너무 소중한 인천의 창

중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입니다. 요즘 미추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
니다. 제2의 고향 인천을 더 잘 알고자 <굿모닝인천>을 꼼꼼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지난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네요. 300호 축하드립니다.
- 첸춘팡 미추홀구

20년 뒤에도 변함없이 굿모닝

내 고향 인천에서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인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굿모닝인천>을 접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천을 알고 더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뒤,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도 제
가 <굿모닝인천>을 읽으며 느낀 즐거움과 유용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굿모닝인천>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 박지영 미추홀구

<굿모닝인천> 컬렉터
2019년도 잘 부탁해

대학 시절 룸메이트의 고향이자 지금은 ‘친구 사이’인 전 여자 친구의 고향이
인천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굿모닝인천>을 어느새 12권 다 모으고
뿌듯한 마음에 사진을 찍어 영구 저장합니다. 바쁜 삶에 치여 예전만큼 인천
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지만 <굿모닝인천>을 읽으며 아쉬움을 달랠니다.
“<굿모닝인천> 내년에도 잘 부탁해!”

- 신재욱 서울 광진구





햇살보다 노을이 더 아름다운 곳.
동쪽에 정동진이 있다면 서쪽에는 '정서진'이 있다.
오늘 지는 해는, 내일 더 빛나는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서녘 하늘을 보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화
려
하
게
|
때
론
아
련
하
게

都 | 市 | 夜 | 色

도 시 야 색

2018년의 마지막, 서쪽 끝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 검은 바다가 출렁이는 포구, 찬란한 불빛이 솟아오르는 빌딩 숲, 온정의 빛이 새어 나는 밤 골목... 태양 아래 감춰졌던 도시의 밤은, 사치스레 비치기도 하고 때론 애잔함이 흐르기도 한다.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어 더 마음을 끄는 야색(夜色). 도시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해가 땅 밑으로 떨어지면 도시의 뒷골목에도 활기가 있다. 동인천 삼치거리.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골목에서, 막걸리 열큰하게 얹힌 추억 한 접시쯤은 가지고 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다'. 삼치구이 한 점, 막걸리 한 잔에 겨울밤이 깊어간다.

일상의 사연을 어둠 속에 잠재운 도시의 밤. 송도국제도시 너머로 불빛에 둘러싸인 인천대교의 실루엣이 보인다.





밤은 또 다른 하루의 시작.
2018년의 끝자락, 어둠을 밝히는 도시의 빛처럼
희망찬 내일을 꿈꾼다.
사진은 올해 확장 오픈한 송도컨벤시아(위)와
송도국제도시의 길을 비추는 'G타워'(아래)



거칠고, 투박하고, 날것 그대로 생명력이 넘친다.
어둠의 베일 속으로 세상 모든 것이 잠기는 시간에도,
북성포구 공장 지대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잠들 줄 모른다.(위)

뼈대를 드러낸 채 바다 위 부표처럼 떠 있는 북성포구의 선술집.
바다에 마음을 꺼내두고 술 한잔에 시름을 달래는
보통 사람의 삶이 여기 흐른다.(아래)



한겨울, 항만의 밤은 빨리 찾아온다.
온 세상이 어둠에 묻혔지만,
인천신항에서 솟아나는 불빛은 꺼질 줄 모른다.
그 빛을 따라 '인천호'는 오늘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



내일을 여는 인천

12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달려왔던 1년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2018년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시는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쉽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본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2018 INCHEON NEWS

‘인천특별시대’ 열다

2018년 7월 1일, 인천시 민선 7기가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희망찬 인천의 내일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300만 인천 시민이 만들어가는 새 시대,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지난 10월 8일 시청 운동장에서 진행된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이 확정됐다. 슬로건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3,052건의 후보작 중 전문 심사단의 1차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3건을 상정, 최종 1건을 이날 현장 투표로 결정했다.

원도심이 살아야 인천이 산다



© 사진 류창현

우리 시는 지난 10월 25일 중구 재물포구락부에서 그동안 구상해 온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원도심 균형발전은 개발이 아닌 재생, 머무르는 문화공간, 주민 참여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도시를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인천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로 옮겼던 해양경찰청 본청이 지난 11월 24일 다시 우리 시로 이전했다. 해경 본청이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인천으로 복귀한 것은 2016년 8월 이후 정확히 2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 해경 관련 세 기관은 서해NLL에 맞닿아 있는 ‘해양도시’ 인천에 함께 상주하게 됐다.

‘무상급식·무상교복’ 시대 연다

우리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 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올해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람유치원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시대를 열게 됐다.

‘OECD 세계포럼’ 성공적 개최



세계적인 국제회의인 ‘OECD 세계포럼’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OECD 세계포럼’에는 각국의 전·현직 정상 등 고위급 인사와 노벨수상자 등 전 세계 100개국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being)’이라는 주제로 향후 수십 년 내 영향을 미칠 인류의 웰빙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세계적 수준의 ‘아트센터 인천’ 개관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시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지난 11월 개관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8,570㎡ 규모에 1,727석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소리 반사 및 소음 차단 시설을 갖춘 교향악 전문 연주장으로, 예술의전당과 제2롯데월드 롯데콘서트홀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인천에서는 ‘인천전자상품권’으로

우리 시는 지난 6월 15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너카드)’을 출시했다. 이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슈퍼마켓(SSM)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운용 시스템이 아닌 통합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인천지역 가맹점에서 3~7%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은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0.8~1.3%)보다 적은 0.5~1%만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1883년 개항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인천 내항.
영욕의 135년을 지나, 내항 바닷길이 새롭게 열린다.

1883년 그리고 내일...

시민이 여는 새 개항을 기다리며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Retro? Newtro!’ 특집 마지막 회는 한정된 공간을 넘은 원도심이다. 인천의 역사는 깊다. ‘오래된’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법으로, 우리 시는 개발이 아닌 ‘재생’을 택했다. 낡은 것을 부수어 새로 짓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미래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1883년 10미터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바닷길, 인천 내항이 시민 품에서 제2의 개항을 맞는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이뤄진 내항 답사 현장



“국가 발전을 위해 내주었던 항만이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시민이 내항을 보고 느끼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닿을 수 없던 바다,
시민 품으로

이른 아침 인천 내항, 인천항만공사(IPA) 홍보선 에코누리호가 힘차게 닻을 올렸다. 바다를 곁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던 시민들이 배에 올랐다. 내항은 1883년 제물포항으로 개항했다. 10미터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새로운 길. 1974년 갑문이 완공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면서, 내항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인천 시민은 산업발전에 뒤따르는 환경오염과 교통문제를 참고 견뎌야 했다. 보세구역이자 국가 보안시설에 가로막혀 자유롭게 드나들수도 없었다.

오래도록 닫혀 있던 내항 바다가 품을 활짝 연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내항과 월미도, 개항장, 동인천역 일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 내항 재생의 청사진을 담은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도 함께 추진한다.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산업 항으로서 내항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맞지 않는 옷이라면 벗어던져야지요.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내항의 기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의 장희숙 소장은, 내항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내항 바다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7부두에 있는 저장 시설 사일로(Silo)의
슈퍼그래픽 디자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책 조형물로 월드 기네스에
오를 예정이다.

시민이 꿈꾸는 내항의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 내주었던 항만이 인천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부 전문가와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의 뜻으로 내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내항을 보고 느끼면서 내일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힘으로 내항의 미래를 열자는 취지로 올해 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행사를 기획한 재생건축가 이의중 씨는 사업을 하기 전 많은 시민이 ‘내항을 걷고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민해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온전히 바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도시에 살면서도 그 존재를 잊고 살았다. 항만을 곁에 두고도 향유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노을이 떨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인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항만에 길이 나서 그 위를 맘껏 뛰어다니고 싶다고 했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한 대학원생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석유비축기지를 되살린 ‘문화비축기지’처럼 문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각자 꿈꾸는 내일은 다르지만 “함께, 내항을 잘 살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같다. 협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과 한길을 걷다

내항 재개발의 시동은 ‘상상플랫폼’이 건다. 인천항 8부두에 있는 옛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CJ CGV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1978년 세워진 창고는 전체 넓이 1만2,150㎡로, 기둥과 내벽이 없는 단일 창고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제 기능을 잃고 2016년 문을 닫았다.

시는 내년 상상플랫폼을 시작으로 1·8부두, 인천역사, 월미도 복합단지 등의 재생사업을 현실화하고 인천만의 해양문화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차이나타운과 내항을 데크 다리로 연결해, 오른쪽으로는 북성포구를 왼쪽으로는 내항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장희숙 소장은 “일부 도로 상황을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사람은 누구나 바다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다. 바다를 매개로 사람들을 인천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원도심 재생에 마중물을 붓는 중요한 단계다.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기업이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화기획자 고정표 씨는 “많은 인천 시민이 내항에 올 기회가 없어, 생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의중 건축가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자산이다.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재생 방안을 도출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시민이 원하는 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시와 시민이 서로 맞춰가면서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며 시민의 입장과 시의 방향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내항을 어떻게 재생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가 바뀐다. 시는 100년, 200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내항의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물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은 반드시 확보한다. 시민 의견 수렴은 시의 원도심 재생 기본 원칙이다. 10미터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바닷길. 인천 내항이 시민 품에서 새롭게 태어날 그날을 기다린다.

월미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인천 내항.
꿈과 희망을 실은 배가, 내일 더 큰 바다를 향해한다.



미운다해
기쁘다
사랑

Since 1994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언제나 굿모닝!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인천의 다양한 매력과 인천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 보물 창고,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 1994년부터 인천 시민과 함께해 온 <굿모닝인천>이
300호를 맞았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대표 매체로서 '인천답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굿모닝인천> 300호를 맞아, 그동안 <굿모닝인천>에 나온 시민 시장 300분의 얼굴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00호 굿모닝인천’
사랑합니다. ‘300만 인천’

안녕하세요. <굿모닝인천> 300호 발간을 맞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굿모닝인천>이 처음 발간된 1994년에 200만 가량이던 인천의 인구는 25년 만에 300만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커지는 사이, 인천 시민들이 품은 삶의 이력도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25년 시간만큼이나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담아온 <굿모닝인천>에 감사를 전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인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5도 출신으로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 인천에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동구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주로 동구에서 보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저의 삶은 오롯이 인천에서의 기억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고향 인천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인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애착도 품고 있습니다. 축스럽지만,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멋지고 자랑스러운 인천을 향한 큰 꿈도 꿍니다. 인천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천 스토리’입니다.

인천은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외형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정체성 혼란이나 소통의 부재를 겪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300만 대도시 인천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느끼는 간극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의 징검다리 말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관심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천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때, 매일 아침이 진정한 ‘굿모닝 인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소통 매체인 <굿모닝인천>도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 증진을 위해 더 애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00호 <굿모닝인천>’. 사랑합니다. ‘300만 인천’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장

congratulation

since 1994

‘진짜 인천’을 담은, 25년의 기록

“<굿모닝인천>을 읽으면서 인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다”라는 어느 독자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굿모닝인천>은 단순한 시 홍보지가 아닌, ‘진짜 인천’이 담긴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입니다. 이 안엔 시의 정책과 주요 사업은 물론이고 인천이 걸어온 길과 인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1994년 1월 첫 호를 펴내고 오늘 300호를 맞이하기까지,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 시민과 전국의 애독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굿모닝인천> 25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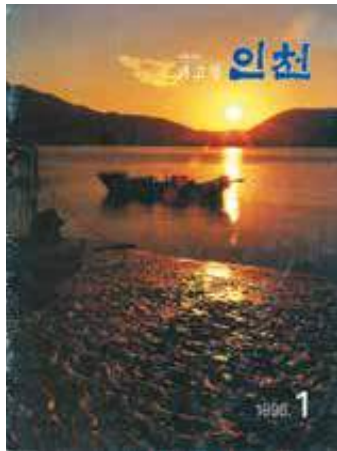
1994.01

<내고장인천>으로 시작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은 1994년 1월, <내고장인천>으로 처음 세상의 빛을 봅니다. 첫 발행 부수는 월 1만5,000부. 잡지 이전에는 1953년 1월 <인천공보>를 시작으로 1961년 5월 <재건 인천>, 1962년 <약진인천>·<약동하는 도시 인천>, 1970년 <시보>, 1989년 <월간시정> 등의 인천시 시정홍보 매체가 있었습니다.



- <굿모닝인천>의 뿌리인, 1953년 1월 발행한 <인천공보>



- <내고장인천> 1996년 1월호 표지와 뒷면. 그해, 인천시의 심벌 마크가 변경되고 두루미, 장미, 목백합으로 시의 상징 요소가 결정됐다.

한세원 인천시 비서실장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내고장인천>의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잡지를 기획하고, 인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글까지 썼습니다. ‘인천을 빛낸 인물들’은 그가 애정을 갖고 연재한 고정 기사입니다. 독립운동가 조봉암, 정치가 장면, 교육가 박창례 등 역사 속 기억해야 할 위인들을 이 세대에 전했습니다. “책을 만들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 갔어요. 서툴지만 인천을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매달 집에서 책을 받아볼 만큼 <굿모닝인천>에 애정이 있는 그는, 지금도 편집진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 <내고장인천>에 연재된 ‘인천을 빛낸 인물들’



한세원 비서실장

- 유동현 <굿모닝인천> 전 편집장의 첫 작품인 <내고장인천> 1997년 4월호. 표지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7.04

‘잡지장이’들이 뭉치다

1997년 4월, <내고장인천>은 더욱 책다운 책으로 거듭납니다. 공모를 통해 출판 잡지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월간 리크루트 편집장 출신의 유동현 <굿모닝인천> 전 편집장을 비롯한 편집진은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결과물로 입증합니다. 표지부터 낯설고 신선했습니다. 시립무용단 오디션을 앞둔 무용수의 옆모습은, 시 공무원들 사이에 널리 회자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액자처럼 잡지를 책상 위에 세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고장인천>은 1997년에 월 7만 부로 확대 발간했는데, 이는 당시 인천의 총 세대인 70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당시 종이 매체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굿모닝인천> 제호 디자인 변천사

-
2006~2010년도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
2011년도

굿모닝 인천

-
2013~2014년도

굿모닝
인천

-
2016년도

굿모닝
인천

-
현재

굿모닝
인천
인천광역시 종합 매거진
INCHEON MONTHLY MAGAZINE

2001.03

<굿모닝인천>의 이름으로

2001년 3월, <내고장인천>은 <굿모닝인천>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시민 공모를 했지만 마땅한 제목이 없던 차에, 유동현 전 편집장이 <굿모닝인천>이라는 제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고 최기선 민선 초대 인천시장을 모델로 처음 인천을 알리는 TV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광고 문안이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뜁니다’입니다.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참신한 발상.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이 솟구치는 도시 인천, <굿모닝인천> 만큼 꼭 알맞은 이름이 또 있을까요.

-
인천(仁川) 정명 600년을 기념한
<굿모닝인천> 2013년 4월호 표지(김기충 작).
2013년은 인천이란 이름을 얻은 지
꼭 600년 되는 해이다.



-
2014년 한 해 <굿모닝인천>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북인북(Book in Book)
형태의 <굿모닝아시아>를 발행했다.
<굿모닝인천> 페이지를 넘기면,
인천이 걸어온 역사가 보인다.



2018. 오늘

종이책에서 전자책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굿모닝인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월 10만 부를 찍어내던 종이책은 2018년 월 3만7,000부로 줄었습니다. 대신 전자책과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독자 설문조사 결과, 종이책에 대한 선호도가 59.4%로 온라인 선호도 2.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촉감을 느끼며 마음으로 두고두고 간직하는 것. 이는 분명 디지털은 대신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영역이 아닐까요. <굿모닝인천>이 1994년 1월 첫 호를 펴내고 오늘 300호를 맞이하기까지,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2000년대

인천을 알리는, 새로운 기준이 되다

<굿모닝인천>은 단순히 시정과 주요 사업을 알리는 소식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며 인천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이 닳도록 인천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인천 사람들조차 차이나타운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 <굿모닝인천>은 인천을 알리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면에 소개한 장소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인천을 찾는 손님들의 손에는 꼭 <굿모닝인천>이 쥐어졌습니다. 지금도 <굿모닝인천>의 콘텐츠는 인터넷 작가, 블로거들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 디지털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00

<굿모닝인천> 300호까지

1994. 1. <내고장인천> 발행(월 1만5,000부)
2000. 1.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발행
2001. 3. <굿모닝인천>으로 제호 변경
2008. 2. 확대 발간(월 10만 부)
2009. 8. 인천세계도시축전 가이드북 특별 발간
2014. 1. 인천 아시안게임 북인북 특별 발간, 외국어판 폐간
(2010. 1. 영문지 <인천나우>, 2015. 3. 중문지 <인천지침> 창간)
2018. 1. 종이 잡지 축소 발간(월 3만7,000부)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 구축



© 사진 김상덕

<굿모닝인천> 편집실에는 매달 적지 않은 수량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컬러링 응모와 독자 설문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루지만,
때로는 꺾꺾 한자 한자 눌러쓴 손 편지가 도착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님들이
편지와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시민과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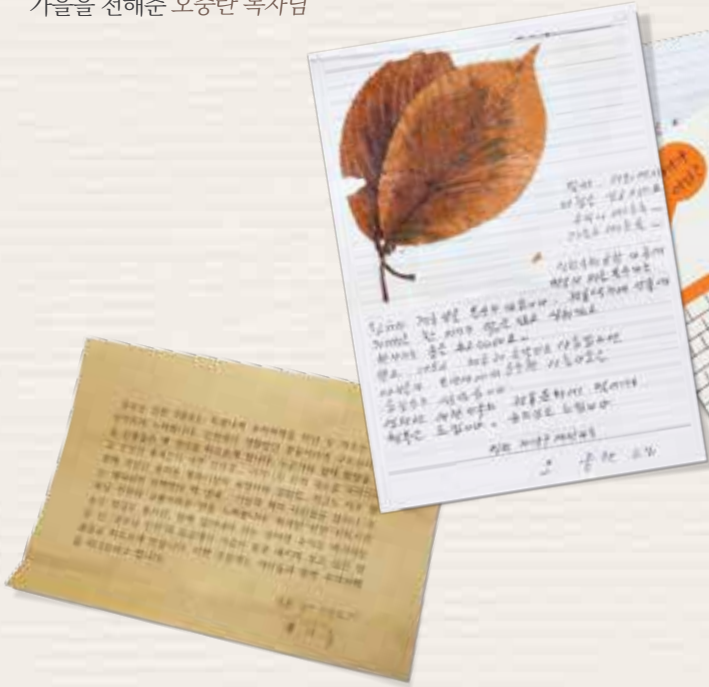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한 자 한 자 눌러쓴 진심 시민의 사랑,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신없이 몰아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가득 담아 보내준
의정부시 전예빈 독자님

“벌써 더위가 물러가고 바람이 불어오네요.
추석이 빠른 듯… 가을도 빠른 듯…”
감성적인 느낌을 가득 담아 말린 낙엽으로
가을을 전해준 오중란 독자님



“책 속의 사진을 보며 인천만의 고풍스러운 멋을
느낍니다. 화려한 도시도 좋지만 늘 함께 살아내야 하는,
빛바랜 이야기에 주목하는 <굿모닝인천>.
덕분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중구 정해중 독자님



“타향에 있어도 고향에 있는 듯한 따뜻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굿모닝인천>에서 전해오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물가물해지는 기억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새해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하장을 보내주는 김경수 독자님

항상 예쁜 구슬을 달아서 보내주는 덕분에
구슬만 보면 어떤 분이 보낸 건지 단박에 알게 되는
윤월선 독자님의 엽서

“항상 끊임없는 열정으로 변함없이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호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
전북 순창군에서 송국화 독자님

꺾꺾 눌러쓴 손 편지에 담긴 애정과 질책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배달되는 독자님들의 따뜻함과 격려가 담긴 편지를 통해 <굿모닝인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예쁜 구슬이나 말린 낙엽을 엽서에 붙여 보내는 분들의 정성에 감동합니다. “각 군·구의 이야기를
균등하게 다뤄달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등 애정 어린 목소리에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굿모닝인천> 덕분에 인천을 다시 알게 됐다” “<굿모닝인천>
은 고향의 따스함을 가득 담고 있다”는 응원의 글을 볼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독자님들의 격려와 뜨거운 애정을 바탕으로 <굿모닝인천>은 2019년에도 열심히 뛰
겠습니다. 더 충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연말 홈파티 준비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과 한 해 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자리에 어울리는 음식은 뭘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케이크는 어떨까. 축하와 사랑을 나누는 이벤트로 케이크만 한 것도 없을 테니 말이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프랜차이즈 케이크가 아닌, 오랫동안 원칙을 고수하며 오로지 정성으로 빵을 만들어온 동네 빵집의 수제 케이크로 연말 파티를 준비해보자.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블루베리생크림케이크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건강에 유익한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베리로 만든 생크림케이크. 새하얀 우유생크림 위에 싱그러운 과일을 촘촘히 얹은 케이크는 보기만 해도 상큼해진다. 부드럽고 촉촉한 우유생크림도 달콤하지 만, 케이크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블루베리 덕분에 한입 베어 물면 보랏빛의 건강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고집스러움으로 지켜온 31년 전통

올해 31주년을 맞이한 세필즈과자점은 100% 유기농 밀가루와 친환경 재료는 물론이고,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쌀, 쑥, 달걀, 고구마와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로 만든 꽃게가루 등 인천의 질 좋은 로컬푸드를 빵의 재료로 사용한다. 특히 이 곳은 ‘이색 조리빵’ 맛집으로 알려진 골목빵집이다.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배인필(61) 대표는 11종 곡물로 만들어 건강까지 챙긴 반죽에 이색적인 재료의 푸짐함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조리빵 개발 배경을 설명한다. 자극적이지 않은 특제소스로 만든 다양한 조리빵은 지난 11월 SBS ‘생방송 투데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서구 장고개로 319 ☎578-0220



1

1. 통새우조리빵 | 아마씨, 퀴노아 등의 11가지 곡물과 레몬물이 더해진 특제 반죽에 시금치와 브로콜리, 새우 두 마리가 통째로 올려져 바다향이 가득 느껴진다. 2. 해물바게트 | 곡물바게트에 인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해물들을 섞어 만든 ‘해물바게트’ 3. 고구마밤크림치즈 | 강화도에서 나는 속노랑 고구마와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묘하게 어울리는 ‘건강한 맛’



2

3

기리쉬케이크

다크 체리와 초콜릿을 이용한 기리쉬케이크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와 혀에 닿자마자 스르륵 녹는 초콜릿의 느낌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케이크. 생크림 초코 케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달지 않다. 입안 가득 한없이 퍼지는 부드러움은 먹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다.



딸기생크림케이크

하얀 우유생크림 케이크에 분말로 만든 딸기가루가 눈처럼 보슬보슬 내렸다. 생크림 과당을 매장에서 직접 연유로 조절하기 때문에 덜 달고, 부드럽고 진한 생크림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우유생크림은 제조일을 포함해 7일 이상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케이크는 주문 제작으로만 판매한다. 케이크의 지나친 달달함을 기대했다면 데커레이션으로 올린 마카롱으로 느껴보자.

아빠가 만드는 건강한 빵

화평동 냉면골목 위 비타민내과 건너편, 2004년부터 지금의 자리에서 ‘브레드파파’를 운영하고 있는 양수향(45), 임은희(44) 씨는 부부 제과인이다. “제과점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빵 만드는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빵을 먹였죠. 큰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애는 정말 빵만 먹고 자란 셈이죠.” 그래서 브레드파파는 유기농밀 빵만을 고집하는 ‘아빠가 만들어주는 건강한 빵’을 모토로 하고 있다. 트렌드에 맞춘 화려하고 예쁜 빵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생각한 푸짐하고 정직한 빵들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운다. 일절의 화학 첨가제나 화학 계량제 없이 오직 밀가루, 물, 소금, 천연 발효종으로만 순수한 빵을 만들고, 하루 판매할 수 있는 양만 준비해 당일 소진하니 오후에 매장을 들르면 원하는 빵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동구 운교로 6 ☎773-5716

숙련된 기술로 만드는 정직한 빵

배고픔에 시작한 빵 만들기 일이 천직이 되었다. 묵묵히 빵을 굽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란 아들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빵 굽는 일을 선택했다. 부자 기능장 빵집 ‘최동순베이커리’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상호로 내건 대를 잇는 빵집이다. “나는 흘러가는 세대이고, 아들은 떠오르는 세대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상호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39년 경력의 제과제빵 장인 최진남(62) 씨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산업현장 교수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에서 특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 3월에는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쌀 자연 발효종을 제조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인천시가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우수 숙련 기술자를 선정하는 미추홀명장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미추홀구 소성로 120 ☎876-1552

1. 바게트빵 | 프랑스산 밀가루를 사용해 쫄득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2. 김치유산균빵 |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빵으로, 부추, 피망, 달걀, 시금치, 김치 등이 들어가 한국인의 입맛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3. 크림치즈팥빵 | 부드러운 앙금과 크림치즈, 중간 중간 씹히는 고소한 호두까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진다. 4. 호박빵 | 높은 호박을 수확해야만 만들 수 있어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계절 빵으로, ‘건강빵’의 품미를 가득 느낄 수 있다.



1. 우유모닝 | 천연 버터와 발효종을 이용해 만든 부드러운 우유모닝은 만드는 데만 3일 정도 걸린다. 2. 버터프리첼 | 한입 베어 물면 펄소금 덕분에 짭짤이 먼저 느껴지는데, 버터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버터의 고소함이 증폭된다. 3. 앙버터 | 수제 통팔과 프랑스산 무염 버터가 들어간 앙버터. 돌판에 구워 바게트처럼 바삭한 빵과 통팔, 버터의 달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롭다.

잠깐! 동네 빵집도 이젠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을 이용하세요

우리 시는 동네 빵집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너카드)’.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은 지역 내 17만5,000여 개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불충전식으로 결제 시 3~7%의 선할인 혜택을 주고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의 업체 및 중소상공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에게는 카드 수수료 0.3%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 VS 세계 도시

⑫ 인천아트플랫폼 VS 가나자와시민예술촌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붉은 벽돌에 피어난 예술

창고와 공장의 예술적 변신은 도시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인천아트플랫폼은 모호하다고 생각되던 인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토록 했다.

일본 내에서 ‘창조 도시’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가나자와시민예술촌처럼,

인천아트플랫폼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공간을 재창안했다. 예술적으로.

글 변순영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VS



창고지대에서
예술창작 레지던시 거점으로 재탄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 구도심에 두 블록으로 길게 자리한 인천아트플랫폼. 이곳은 1883년 개항기에 건립된 건축물들과 1930~1940년대에 지어진 창고 건물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당시 근대 건축 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는 구역이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10여 년에 걸쳐 조성됐다. 부지면적 8,450.3㎡에 자리한 인천아트플랫폼은 구 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13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작과 향유, 유통, 교육으로 이어지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창작 스튜디오, 아카이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커뮤니티관 등으로 재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및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 레지던시 작가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창작활동을



입주 작가 작업실(위)
인천아트플랫폼 광장 내 설치 작품(아래)

가나자와시민예술촌



KANAZAWA CITIZEN'S ART CENTER



개관	2009년
건립 배경	1883년 개항기에 건립된 근대건축물 보존 및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창고 건물 일대를 예술가 창작 지원 시설로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으로 추진
규모	부지 면적 8,450.3m ² , 건축 연면적 5,605.35m ²
시설	창작 스튜디오, 아카이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커뮤니티관 등으로 구성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

V S

KANAZAWA CITIZEN'S ART CENTER

가나자와시민예술촌

개관	1996년
건립 배경	가나자와시 도심에 있던 이시카와현의 옛 현청 건물 등 도심 주요 건물이 이전한 유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자는 시민사회 중심 논의로부터 출발했다. 본래 방직공장과 재해대피소로 사용되던 곳을 옛것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규모	총 면적 9만7,000m ²
시설	멀티 공방, 드라마 공방, 뮤직 공방, 아트 공방, 오픈 스페이스, 사토야마의 집, 퍼포밍 스퀘어, 다이와초 광장으로 구성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 현재 제9기 입주 작가로 총 4개국(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일본) 25팀(32명)이 창작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개방형 창작 공간을 함께 운영해 열린 예술 공간을 표방하며, 예술체험 및 예술교육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가나자와시민예술촌

가나자와시는 일본 내에서도 ‘창조 도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구도심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도심에 있던 이시카와현의 옛 공공 시설물은 지역 문화 관련 단체들의 공간과 문화시설로 재탄생했다. 이 중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은 본래 방직공장과 재해대피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역에 공연장은 많으나 연극, 음악 등의 연습 시설이 없음을 직시하고 이곳을 대규모 연습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 실현된 곳이다. 옛것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 활동의 장으로 재생시킨다는 목적으로 1996년 개관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공립 문화시설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 개방제로 운영하며, 저렴한 이용료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시민 디렉터와 각 분야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나자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은 총면적 9만7,000m²에 멀티 공방, 드라마 공방, 뮤직 공방, 아트 공방, 오픈 스페이스, 사토야마의 집, 퍼포밍 스퀘어, 다이와초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일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며, 외부와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나자와는 문화 예술 행위를 먼저 정착시키고, 그 파급 효과로 주변 상가나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냈다.

더 가까워진 생활문화 공간,
열린 예술 공간으로의 도약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 예술창작 활동의 양상도 많이 바뀌었다. 시민 중심의 예술정책이 대두됐으며,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예술 공간에서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게 됐다. 인천아트플랫폼 2개 동을 리모델링해 2016년 개관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발표를 위한 기능이 인천아트플랫폼에 새롭게 더해졌으며,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됐다. 한중일의 것이 묘하게 섞인 키치적 풍경과 예술과 일상, 근대와 현대의 접목... 인천아트플랫폼이 조성된 후 모호하다고 생각되던 인천의 매력이 새롭게 발견됐다. 2019년 개관 10주년을 앞둔 인천아트플랫폼.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공간을 재창안하고, 창조적인 예술 프로젝트로 거듭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V4 와이번스 홈런, 인천 홈런!

‘구도(球都) 인천’의 기개가 충만하다. 인천 SK와이번스가 한국시리즈를 네 번째 제패했다. 2000년 창단 이후 2007년과 2008년, 2010년 우승에 이어 8년 만이다. SK와이번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베이스볼’이 시작된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SK와이번스



2018 한국시리즈 6차전 우승 세레머니

‘야구가 시작된 도시, 야구를 잘하는 도시.’ 인천 사람들의 가슴에는 늘 야구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다. 구도(球都) 인천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의 대장정이 시작된 지 36년. 인천 SK와이번스가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했다. 우승을 이끈 트레이 힐만 SK와이번스 감독은 인천 시 명예시민이 됐다.

인천 SK와이번스는 지난 11월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6차전에서 연장 13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두산 베어스를 5대 4로 꺾었다. 4승 2패로 2018년 한국시리즈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였다. 순간 인천 시민은 하나가 됐다. 인천이란 이름을 걸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모여, 다시 기적을 일군 것이다.



2000년 한국 프로야구 홈 개막전에서 SK와이번스 야구단(2000년 4월 8일)

구도 인천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결성한 ‘한용단’은 우리나라 야구 역사 최초로 한국인으로만 이뤄진 야구단이였다. 지금의 제물포고 자리인 ‘웃터골’에서 이들 경기가 열릴 때면 조선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하나가 됐다.

1950년대 전국에 고교 야구의 열풍이 불 때도, 인천은 중심에 있었다. 인천상업의 후신 인천고는 1952년부터 3년 연속 전국체전 우승, 1953년과 1954년 청룡기 우승 등으로 고교 야구 최강자로 군림한다. 라이벌 동산고 역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3년 연속 청룡기 우승을 거머쥐고 이후에도 승리는 계속됐다.

고교 야구가 지핀 열기는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로 이어졌다. 인천은 연고팀 삼미슈퍼스타즈를 창단했다. 이름과는 달리 스타플레이어 하나 없이 ‘최하위를 벗어나는 게 목표’이던 팀이었다. 청보핀토스, 태평양돌핀스... 그 후로도 인천 연고팀은 계속 바뀌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유니콘스는 1996년 창단 첫해 준우승을 차지하고 2년 뒤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며 인천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서울 입성을 시도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었고 결국 SK와이번스에 연고를 넘겼다.



정운찬 KBO 총재와 포옹하는 트레이 힐만 감독(좌) 한국시리즈 6차전, SK팬들의 뜨거운 응원(우)



그동안 인천 야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팀이 흩어지고 바뀌었으며 떠난 선수도, 다시 돌아온 선수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인천이란 이름을 걸고 땀 흘리는 선수들과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팬들이다. 2000년 인천의 대표 팀이 된 SK와이번스는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8년 한국시리즈 우승이란 빛나는 성과로 인천 시민의 성원에 보답했다. ‘인천 하면 야구, 야구 하면 인천’ 구도 인천의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히스토리 너머 스토리’

유동현

사진 김보섭 |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송현동 100번지 양키시장. 찬바람 부는 골목에 좁고 누추한 가게들이 거미줄처럼 얹혀 있다. 대부분 셔터가 무겁게 내려져 있다. 그 위로 철거 표식이 아무렇게나 나뒹군다. 한낮에도 백열등에 의지하는 컴컴한 골목, 한 줄기 새어 드는 빛의 앞자락에 유동현(59)을 세웠다. 제법 잘 어울렸다.

<굿모닝인천> 전 편집장 유동현은 인천 동구 송현동 사람이다. 시커먼 공장이 담벼락처럼 둘러싸인 동네, 철도길 마을에서 태어나 서툰한 살이 될 때까지 줄곧 머물렀다. 생애 가장 긴 시간을 송현동에서 보냈다. 태어나 성장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 그가 인천이고, 이 동네가 곧 그다.

언젠가 한 블로그에서 “<굿모닝인천>은 인천 시민을 위한 월간지다. 우리 세금으로 국민에게 인천을 알리기 위해 뛰는 인천통 기자가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라는 독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굿모닝인천>은 관공서에서 만드는 일반 소식지와는 다르다.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이 와락 다가오도록’, 사진 한 장 글 한 줄에 사명감을 다져넣는다. 유동현으로부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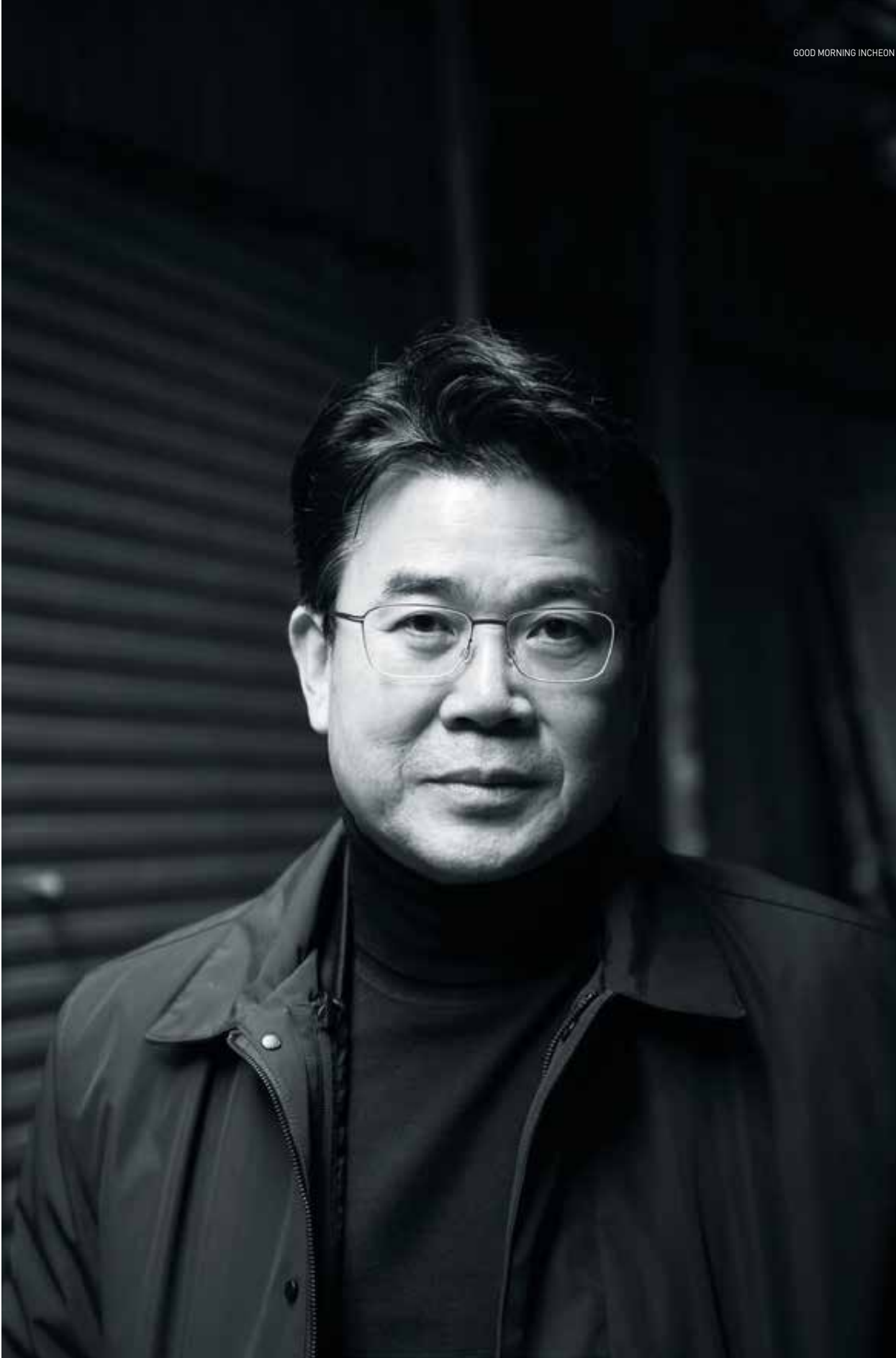
그의 첫 작품은 잡지 형태의 시 홍보지 전신인 <내고장인천>의 1997년 4월호다. 표지부터 달랐다. 시립무용단 오디션을 앞두고 긴장감이 도는 무용수의 옆모습은, 시 공무원들 사이에 회자될 만큼 파격적이었다. ‘이제, 서쪽에서 해가 뜹니다’라는 당시 인천시 TV 광고 문안에서 착안한, <굿모닝인천>이라는 제호도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내용 면에서도 인천을 알리는 기준이 될 만큼 충실했다. 처음부터 인천에 정통한 건 아니었다. ‘인천에 의미 없는 골목은 없다. 인천에 아름답지 않은 골목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골목골목을 누빈 노력의 결과였다. 2001년부터 똑딱이 ‘디카’를 들고 인천 골목을 쫓아 담았다. 그 사이 개발의 광풍에 휩쓸려 사라진 곳도 있다. 그렇게 인천 역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그려모았다.

어느덧 <굿모닝인천>은 스물다섯 살, 300호를 맞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종이 매체가 힘을 잃었지만, <굿모닝인천>은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로 충성도 높은 독자들과 사랑을 받고 있다. 유동현이 있기에 가능했다.

“숨을 잠시 고르겠습니다. 더 크게 인천을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지난해 <굿모닝인천> 12월호에 쓴 ‘몽(夢)땅 인천 골목’의 마지막 글귀다. 그는 올해 6월호를 끝으로 편집장직을 내려놓았다. 인사 없이 떠나 늘 마음이 쓰였던 그는, 독자들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면에 얼굴을 비치기로 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현재 그의 명함에는 ‘인천 이야기 발전소’가 새겨져 있다. 인천이 품은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소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그의 모토인 ‘히스토리 너머 스토리’에서 기인한다. 앞으로도 그는 학자들이 연구한 인천의 기록을 이야기로 풀어, 세상에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진가 김보섭과 편집장 유동현. 곧 사라질 골목에서 마지막 작업을 함께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김보섭은 김보섭답고, 유동현은 유동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헤어지고 나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두 분을 바라보며 미래의 저를 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훗날 저도 두 분처럼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다. “그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소.” 그는 ‘진짜 인천’을 알게 한, 나의 스승이다.



CULTURECALENDAR

12

01

엘리 윈터 페스티벌 -
엘로우 스트링 보이즈
‘재즈 스트링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1588-2341

02

선데이 콘서트 -
The PIANO in C Major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4

SAC ON SCREEN
헨델의 메시아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무료(사전 전화 예매 필수)
☎ 460-0660

05

아시아 챔피언십 미술사
김민형의 ‘12월의 미술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06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아몬드’

부평문화재단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일반 1만5,000원,
단체 1만원(20명 이상)
☎ 500-2085

선데이 콘서트 - 트리오 아일린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8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VIP석 12만1,000원,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420-2000

인천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잔다리 건너 제물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2월 16일까지 공연
월~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
전석 2만원
☎ 420-2790



09

십센치 X 선우정아
CONCERT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선데이 콘서트 -
바흐클레기움서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2

최용민의 JAZZ CLASS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2시
성인 1만원, 아이·청소년 5,000원
☎ 289-4275

13



인천시립합창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
캐롤의 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 1588-2341

창작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부평문화재단 해누리극장
~12월 15일까지 공연
월~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 500-2000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8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겨울왕국 올라프와 함께하는
‘생생 LIVE 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15

우리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VI
‘해천추범_빈털터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6,000원
☎ 505-5995

KCO Chamber Orchestra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 289-4275

16

윤종신 전국 투어 콘서트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12만1,000원, R석 9만9,000
원, S석 7만7,000원
☎ 1566-6551



선데이 콘서트 - Trio Altus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8

클래식 시리즈 6 -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1588-2341

19



크리스마스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888-9911

2018 커피콘서트 X 권진원
‘해피 크리스마스 투 유’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어린이 국악 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22

유기 구라모토와
친구들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부평문화사랑방 송년음악회
‘안녕’하자. 올해도&내년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7,000원
☎ 505-5995

콘서트 김창완밴드의 몽클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460-0660

23

염유민밴드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VIP석 12만1,000원,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1566-6551



선데이 콘서트 -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5

정훈희 X 송창식 with 함춘호
크리스마스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호두까기 인형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000원
☎ 1666-7584

26

인천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인천시민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438-6040

마티네 콘서트 마실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460-0660

27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873-7772

29

책 먹는 여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2월 30일까지 공연
29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3만원
☎ 010-2284-4842

로이킴 LIVE TOUR
INCHEON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1만원
☎ 567-8337



30

선데이 콘서트 -
아르볼 하모니카 앙상블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3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야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R석 1만원, S석 7,000원
☎ 438-7772

이달의 展

이혜련, 우주 속의 올림과 소통하는
세계 시리즈
12월 4일(화)~13일(목)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조명진, 색·사랑에 물들다
12월 4일(화)~13일(목)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4회 인천광역시학생서예대전
12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박영동 개인전
12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휴과 사람들 정기회원전
12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녹청자 진흥회전
12월 8일(토)~14일(금)
갤러리 지오

제50회 인천사생회정기전
12월 14일(금)~2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윤석 개인전
12월 14일(금)~2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에그리나전
12월 15일(토)~21일(금)
갤러리 지오

2018 인천평생학습관 성인문해 시화전
12월 18일(화)~27일(목)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이순훈, 삶의 흔적전
12월 18일(화)~27일(목)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브릭팩토리
12월 8일(토)~31일(월)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사진집단사
12월 22일(토)~28일(금)
갤러리 지오

제78회 인천미술협회회원전 및
2018 미술인의 밤
12월 21일(금)~2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

올해도 수고했어요

2018년을 마무리하는 훈훈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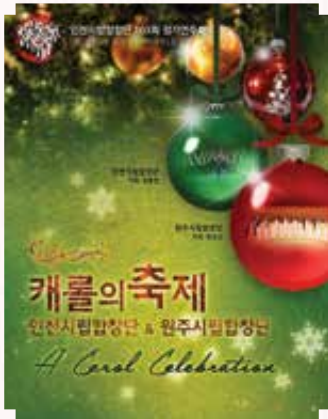
유난히 더웠던 여름! 올겨울은 여름과 경쟁하듯 찬바람이 씩씩 불니다.
무술년의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12월은 항상 아쉬우면서도 설렙니다.
2018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할 연말 공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캐럴의 축제 A Carol Celebration!!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언제나 인천 시민의 곁에서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인천시립합창단이 2018년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맑고 정제된 합창 사운드로 사랑받는 원주시립합창단을 초청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캐럴 메들리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고 원주시립합창단은 다양한 무반주 합창곡과 '새야 새야' 같은 친근한 한국 곡들을 노래할 예정입니다. 국내 정상급 두 시립합창단이 펼쳐 보일 감동적인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1588-2341
일시 12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크리스마스에 마주친 가요계의 두 거장

정훈희 X 송창식 with 함춘호 크리스마스 콘서트

올 크리스마스에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장, 정훈희와 송창식이 인천에서 함께 노래합니다. 한국의 다이애나 로스라고 불리는 정훈희는 올해로 데뷔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수채화 같은 맑은 목소리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녀와 독특한 창법과 한국적 정서가 녹아 있는 가사들로 사랑받는 송창식의 컬래버레이션은 추운 겨울 웅크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것입니다. 특히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이끄는 밴드가 두 거장의 하모니에 격을 높일 겁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1566-6551
일시 12월 25일(화) 오후 7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1만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뮤지컬계의 어벤져스, 인천 상륙!

엄유민법 콘서트

‘엄유민법’은 뮤지컬계 유명 스타 4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가 그들입니다. 각자의 이름만으로도 설렘 그들이 엄유민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뭉쳤습니다. 다양한 뮤지컬 레퍼토리와 유준상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까지 음악과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엄유민법의 트레이드마크인 마성의 화음과 정상급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가 순식간에 뮤지컬의 한 장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네 남자의 이야기를 인천에서 즐겨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1566-6551
일시 12월 23일(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2만1,000원,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일 년, 열두 달. 12잔의 커피와 12번의 공연

2018 커피콘서트 X 권진원 ‘해피 크리스마스 투 유’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인천의 커피콘서트는 이제 인천 문화생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2번째 커피콘서트는 깊은 울림의 보컬리스트 권진원과 함께합니다. 강변가요제 출신이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했던 권진원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30년의 긴 시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는 권진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1588-2341
일시 12월 19일(수) 오후 2시,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000원



Rochestra! 클래식 공연을 뛰어넘다

2018 로이킴 LIVE TOUR INCHEON

감미로운 목소리의 명품 보컬 로이킴이 인천에 옵니다. 로이킴은 잘생긴 외모와 속삭이는 듯 마음을 흔드는 음색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Rochestra라는 부제처럼 대중가요의 수준을 넘어서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색과 감동적인 연주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연말, 로이킴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567-8337
일시 12월 29일(토) 오후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1만원



NEWS BRIEF

전국 최초 ‘치매안심학교’ 개교

잠재적 치매 환자 치유시설인 인천 치매안심학교가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다.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의 치매안심학교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는 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관사를 재건축한 것이다. 치매안심학교는 북카페, 예술작품 갤러리, VR 치매 체험관,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치매안심학교에

는 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치매안심학교는 맞춤형 치매 예방 사업, 치매 관



리 인프라 확충 사업, 뇌 건강 정보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잠재적 치매 환자의 치매 발병을 최대한 저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건강증진과 ☎440-1583

12월 1일부터 8개 버스노선 조정



부천시 소사동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지난 6월 개통, 남동구 서창동에서

시흥시 신천역을 운행하는 직통 노선이 신설된다. 또 지난달 첫 입주가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8공구를 운행하는 버스노선도 신설된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나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버스정책과 ☎440-3952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현판식

기업 스스로 공장 이미지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현판식이 지난 달 13일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는 ‘나이프코리아’ 등 2곳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정된 2개 기업은 각각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직원을 배려하는 공간배치와 우수한 복지, 젊고 창의적인 인재 고용을 위한 혁신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들 기업

에게 10억원 한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0.5%를 우대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사업과 수출 마케팅 등 14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 산업진흥과 ☎440-4264



문화누리카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재)인천문화재단은 2018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간이 12월 31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 연 7만원을 제공하는 문화예술평가제이다. 공연·전시·영화·스포츠 경기 관람, 음반·도서 구매, 국내 여행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는 부평구, 계양구의 지역 케이블TV 결제도 가능하며, 2019년에는 인천 전 지역 케이블TV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문화재단 ☎760-1035

미추홀구 의료복합단지 첫 삽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구 도시개발 1구역 내 의료복합단지가 첫 삽을 떴다. 미추홀구는 지난 달 14일 개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복합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의료복합단지는 주안사거리 일대 2만6,169㎡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4층 규모(연면적 27만 9,145㎡)로 지어진다. 공동 주택, 상업 시설, 종합 의료 시설을 갖춘 주상복합건물로, 2022년 8월 준공이 목표다.

미추홀구 ☎887-1011

일자리 안정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우리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인천시 선정 우수·인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험에 가입하면 대금 미납 등 상황 발생 시 손실 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 산업진흥과 ☎440-425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평가회’ 개최

우리 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인천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통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유공자 44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올해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선 일자리 참여 어르신 중 최고령 어르신인 이연분(96·여) 어르신과 공순용(95·남) 어르신에게 인천시장상을 수여했다. 또 인천시장상에는 일자리 참여 우수 어르신으로 계양구 어르신 외 15명이 선정됐다.

시 노인정책과 ☎440-2837

제3회 인천세계문자포럼 성황

우리 시는 지난달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8 인천세계문자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포럼은 2021년 인천에 건립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인천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를 갖는다. 시와 인하대학교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엔 ‘문자가 만드는 글로벌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명한 문자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시 문화재과 ☎440-4488

몽골에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 3호점 개소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 3호점이 지난 11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문을 열었다. 센터는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인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 1호점은 올해 7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2호점은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각각 문을 열었다.

시 보건정책과 ☎440-2739

친환경 전기버스 내년부터 본격 운행

우리 시는 내년부터 전기버스를 본격 운행한다. 시는 1대에 1억2,500만원 하는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해 1개 노선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전기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50대의 친환경 전기버스·수소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 버스정책과 ☎440-3984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강화



우리 시는 마을주택관리소의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체 군·구를 대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셀프집수리교육을 실시해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공구 대여, 무인택배 서비스, 주거환경정비 등 주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 주거재생과 ☎440-3487

길병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로 선정

우리 시는 지난달 12일 인천시청에서 길의료재단 길병원과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로 선정된 길의료재단 길병원은 진료실, 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놀이방 등을 설치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 전문가를 배치해 올해 안에 센터를 개소,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 출산보육과 ☎440-2752



IFEZ NEWS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 송도에 ‘등지’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9일 오전 포스코타워 29층에 공식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잠시드 호자예브(Jamshid Kodjaev) 우즈베키스탄 통상부 장관, 비탈리 펜(Vitaly Fen) 주한대사, 김창건 무역대표부 대표(명예영사) 등 우즈베키스탄 관계자와 국내 기관 관계자 및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과 주한대사관 상무 관련 외교관 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 비즈니스 센터로서 양국의 경제교류 추진 및 우즈베키스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IFEZ 스마트시티 기술, 중남미 수출길 활짝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기술이 중남미 수출길을 공략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각) 페루 수도 리마에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기술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페루 국회 교통통신상 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과 교통통신부 규제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선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우리 기업 진출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축적했던 스마트시티 기술과 핵심 소프트웨어인 자체 개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선보였다.

세계 관심 집중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가 세계적인 벤치마킹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센터가 2014년 2월 문을 연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올해 3,921명을 포함해 국내·외 방문객 1만7,178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방문객이 1만1,204명(전체 65%)을 차지해 명실상부 스마트시티 벤치마킹을 위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올해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46개국 2,215명이 방문했으며,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 에콰도르 산업부 장관 등과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두바이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 준공



© 사진 류창현

멋스러운 한글로 배우는 한글문화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3일 IFEZ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의 일환인 ‘캘리그래피 강좌’를 G-타워 1층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글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된 이날 강좌는 한국어교실 수강생과 IFEZ 거주 외국인 등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강좌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응이 대단해 일회성이 아닌 정규 강좌 편성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강좌를 발굴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테리아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말 준공된 카페테리아가 12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물 1층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며 2층은 바다 도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로 운영할 예정이다.

IMAGE NEWS



연교차 60도 역대급 폭염에 이은 혹한?

- 추운 겨울이 온다!
- “북극 한파에 폭설, 미세먼지까지
올겨울 날씨 ‘최악’ 예상” (MBC뉴스)

#추운 겨울에 #더 추운 이웃들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1



사랑의 온도탑 100도 냉담과 추위는 가라!

- 73일간의 소중한 나눔 약속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내년 1월 말까지 #소외계층 기금 마련 #7,400만원 성금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 #모금 목표액 74억7,000만원
#‘사랑 온도 100도’ 기대

02



“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

- 시민이 만들어가는 복지 네트워크 ‘행복나눔인천’
-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면 언제나 ‘행복나눔인천’

#현금·물품 지원·재능기부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
#홈페이지(happyncheon.or.kr) #스마트폰 앱
(행복나눔인천) #전화(1899-5878)로 편리하게 참여

03



찾아가는 ‘눈높이’ 공감 복지로 “인천의 겨울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건강·안심 복지도시’ 인천은 #‘나눔 공유·공감’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04

COUNCIL NEWS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미국의 호놀룰루시의회 어니스트 마틴(Earrest Y. Martin) 의장을 비롯한 총 4명의 대표단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 방문은 자매우호도시로서 두 도시 의회의 상호 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범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교류 협력과 친선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앞으로 상호 지속적인 교류로 두 도시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이용범 의장은 “2012년 두 도시 의회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며 “호놀룰루시의회 대표단의 방문으로 두 도시의 교류 협력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나라 최초 미주 이민의 정착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와 의회 차원에서 2012년 11월 19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해서초, 의정아카데미 본회의 체험교실 참가

인천해서초등학교 학생 52명이 지난 달 20일 인천시의회가 개최한 의정아카데미 본회의의 체험교실에 참가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이날 행사 참여를 통해 본회의의 회의진행을 방청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실제 시의원들이 회의하는 곳에도 앉아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앞으로는 시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이용범 의장은 참여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인천의 발전을 이뤘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인천청담고와 한오름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학교에 방문한 교육위원들은 학업 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대안적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담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학생 대

표가 학교 현황과 학생 자치활동들을 직접 설명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의 브리핑에 교육위원 및 교직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학교 소개를 받은 교육위원들은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질의하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점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9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원스톱(ONE-STOP) 통합사무실 운영상황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통합사무실을 확보하고 화장·보안 통합 서비스 체계로 개선해 운영 중이다. 또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은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 대치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원을 투입해 봉안당 3만9,000기, 자연장지 1만4,000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변화하는 장사문화 수요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 인천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개발연구회, 정치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달 6일 오전 8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치(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9월 4일 ‘정의는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한 이후 개최하는 4번째 세미나로,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신항 등 사업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인천시 항만과장, 인천교통공사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인천 신항,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월미케도차량사업 현장, 차량 제작 공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요 시설물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위원회, 환경현안 관련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달 7일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소관 업무인 환경 분야 현안 과제와 관련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송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그간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산업경제위원들은 현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소홀함 없이 철저히 관리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 소통과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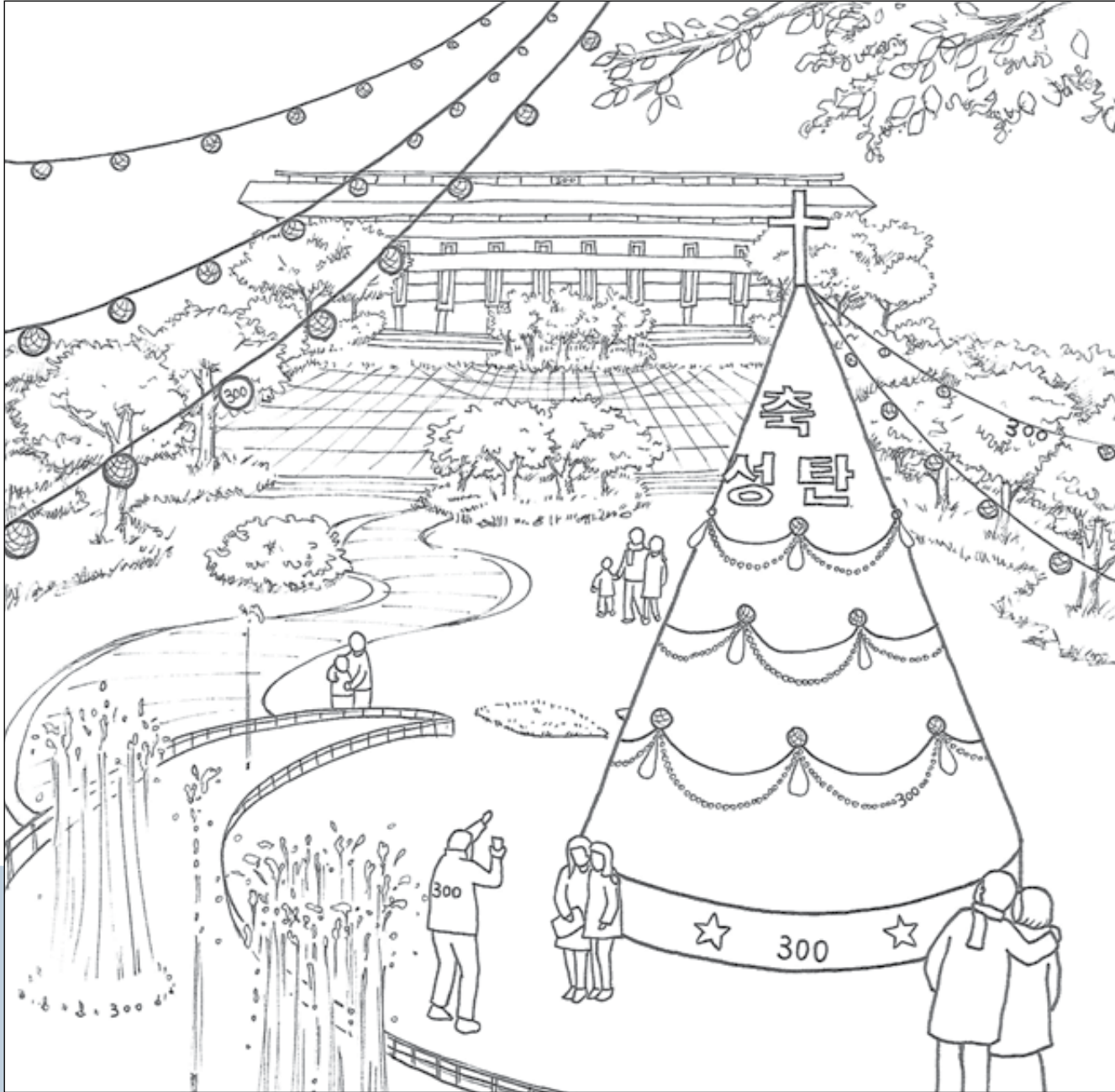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의회저널’은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굿모닝인천> 300호 특집 300을 찾아라!

300만 인천 시민, 300을 찾아라!
시민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2018년 성탄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민선 7기, <굿모닝인천> 300호 발행을 축하하며, 그림 구석구석에
숫자 ‘300’을 7개 숨겼습니다. 본인만의 색깔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칠하면서,
7개의 ‘300’을 찾아보세요.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기간 : 2018년 12월 20일까지 / 문의 : ☎ 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굿모닝인천> 11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박성호 연수구 해송로



김성은 계양구 화산로



박성호 연수구 해송로



김유진 미추홀구 연남로



박옥자 서구 탁옥로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 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 설문 조사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 주세요.
성별 : (남 / 여) 연령 : (세)

Q1. <굿모닝인천>을 접해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우편 배송
- 2)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 3)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 4)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5)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 6) 기타()

Q2. <굿모닝인천>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 2) 시민 대상 시 주요 정책 공유 매체
- 3)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 4)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전파 매체
- 5)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Q3.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4.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 2)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3)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4) 기타()

Q5.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 2) 대체로 좋아졌다
- 3) 특별한 변화가 없다
- 4) 대체로 안 좋아졌다
- 5) 매우 안 좋아졌다

Q6. <굿모닝인천>발행 형태는 오프라인(종이책)
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 1) 오프라인(종이책)
- 2) 온라인(이북, 웹진)
- 3) 오프라인(종이책) 중심 온라인(이북, 웹진) 동시 발행
- 4) 온라인(이북, 웹진) 중심 오프라인(종이책) 동시 발행

Q7. 문항 6의 답변에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Q8. 인천시와 <굿모닝인천>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후
1) 우편 또는 2) 홈페이지(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후 사진 파일 첨부/또는 직접 기재)로 보내주세요.

보내는 방법은 왼쪽 페이지 하단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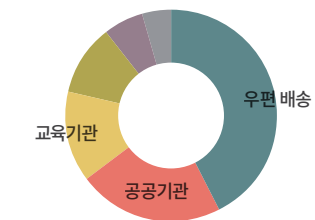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5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의견은 설문과 함께 작성해 주세요.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 조사에 응해주신 1,000여 명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인천시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조사 대상 : <굿모닝인천> 독자 및 인천 시민
참여자 수 : 1,003명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
(<굿모닝인천> 및 인천시 공식 페이스북)
조사 기간 : 2018년 1월 호~2018년 11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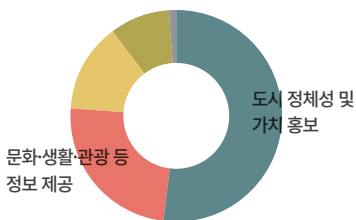
1. <굿모닝인천> 접촉 경로



- 우편 배송 42.5%
- 공공기관 비치 22.4%
- 교육기관 비치 13.8%
- 대중교통 시설 10.8%
-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6.2%
- 기타 4.3%

*<굿모닝인천>을 접한 경로는 우편 배송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22.4%) 및 교육기관(13.8%)을 통해 주로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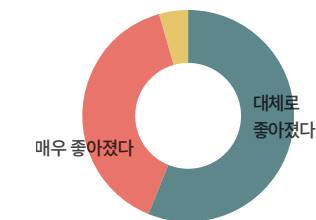
2. <굿모닝인천> 매체 성격



- 인천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52.0%
- 문화·생활·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24.2%
- 시민 대상 주요 정책 공유 매체 13.7%
-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9.1%
-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정보 공유 매체 1.0%

*모든 성별과 연령의 응답자가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매체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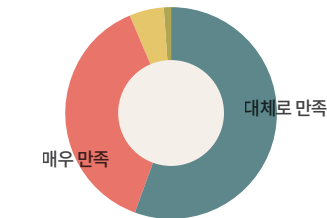
3. 인천 인식 변화



- 매우 좋아졌다 56.3%
- 대체로 좋아졌다 39.4%
- 특별한 변화가 없다 4.3%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10명 중 9.5명이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50대 이상의 인식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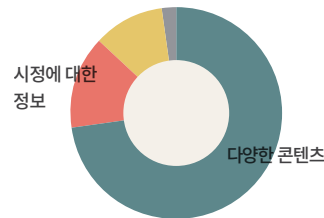
4-1. <굿모닝인천>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55.7%
- 대체로 만족한다 38.0%
- 보통이다 5.2%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

*응답자의 10명 중 9.3명이 <굿모닝인천>에 만족했습니다. 이 중 5.5명은 매우 만족했으며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에서는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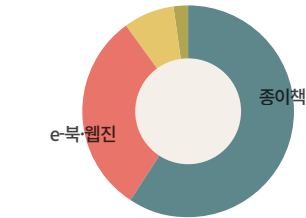
4-2. 만족하는 이유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72.8%
-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14.3%
-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10.9%
- 기타 2.0%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72.8%)가 <굿모닝인천>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으며, 시정 소식이나 정책 및 혜택, 인천의 미래 및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더 다뤄지길 바랍니다.

5. 발행 형태 선호도



-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오프라인 형태 59.4%
- 오프라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동시 발행 30.7%
- 온라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오프라인 동시 발행 7.9%
- e-북 또는 웹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형태 2.0%

*응답자의 59.4%가 e-북이나 웹진보다는 종이책으로 발행되는 걸 선호했으며, 30.7%는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동시 발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추가·보강됐으면 하는 내용

시정 계획(지방 정책, 복지 형태 등)
폭넓은 시민 의견 코너
인천의 미래와 역사 관련 내용
인천 출신 문화예술가 소식

문화·여가 생활, 맛집, 카페 정보
인천의 섬 등 여행지 추천
인천 내 각종 스포츠 소식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 생활·문화 정보

브랜드, 지역 정서를 담다

생소성주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프랑스 술 하면 와인을 떠올리고, 일본 술 하면 대부분 사케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술은? 당연히 막걸리다. 특히 막걸리는 각 지방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지역 특산품이 많다. 서울의 장수, 양평의 지평, 부산의 금정산성처럼. 인천은? 당연히 소성주다.

소성주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인천의 지명이었던 소성현에서 따온 이름이다. 인천의 막걸리는 1938년 대화주조란 이름으로 설립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1974년 5월 인천지역의 대화, 천일, 만석, 동아, 용강, 삼화, 영춘, 소성, 대동, 영화, 신창 등 11개 양조장이 합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성주는 80년 넘게 인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했으며, 1990년 1월 최초로 쌀 막걸리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혁신을 선보이기도 했다.

소성주에는 재미있는 점이 많다. 먼저, 소성주는 반제품이다.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를 넣는다. 반면, 소성주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아 효모가 서서히 발효되는 살아 있는 막걸리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짧을 수밖에 없다. 맛을 위해 유통기한을 포기한 독심을 느낄 수 있다. 반제품이라서 소성주의 병뚜껑도 완전 밀폐가 아니라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빈틈을 두었다. 소성주를 비스듬히 두면 약간 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깥과 호흡해야 소성주는 살아 있는 막걸리가 된다.

소성주는 출하된 후 시간에 따라 마시는 맛도 달라진다. 출하된 직후와 이틀 뒤, 5일 뒤의 맛이 다 다르다. 젊은 사람들은 바로 나온 소성주가 입맛에 맞는다고 하고, 술꾼들은 5일 지난 소성주가 입에 달라붙는다고 한다. 소성주는 라벨에도 재미를 담았다. 쥐, 소, 말 등 12간지의 동물 이미지를 라벨에 표현했다. 술자리에서 자신의 띠를 얘기하면서 마시는 즐거움, 12간지 동물들을 찾는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 가지 라벨만으로 시장에 내놓는 다른 지방의 막걸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소성주만의 포인트다.

80년간 인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했던 소성주. 부평에 있는 인천탁주 제1공장에는 인천탁주 역사관이 있다. 인천 막걸리의 변천사를 볼 수 있고 소성주의 12간지 모든 병의 디자인도 볼 수 있다. 이번 주말엔 인천탁주 역사관을 둘러보고, 소성주를 마시며 한 주를 잘 견뎌낸 내게 격려를 해주고 싶다.



인천탁주 역사관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인천시는 예산집행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인터넷 및 컴퓨터를 활용해 기본적인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민
모집 인원 : 50명 (공개 모집 30명, 군구추천 20명)
모집 기간 : 11월 15일(목)~12월 7일(금)
결과 발표 : 12월 21일(금)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신청
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인천센터
대상 : 구직자, 구인업체
홈페이지 : 건설일드림넷 ㉡www.cid.or.kr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인천센터 ㉠654-1829



소중한 정치후원금

우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정치후원금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좋은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됩니다.

홈페이지 :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한국방송통신대 2019년도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개 학과에서 2019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 모집 인원, 지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 12월 3일(월)~2019년 1월 8일(화)
모집 내용 : 사회복지학과 등 23개 학과 모집
문의 : ㉠1577-2853, ㉡www.knou.ac.kr

인천 해양 설화 그림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 열려

우리 시는 인천의 해양 설화를 활용한 그림책 제작 기념으로 인천 해양 설화 이야기 그림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상 : 만 6세 이상 국내 거주자 선착순 200명(신청 시 자녀 동반 명수 반드시 명기)
일시 : 12월 7일(금) 오후 1시 30분~2시 30분
모집 기간 : 11월 19일(월)~12월 5일(수)
신청 방법 : 시 홈페이지 소통광장의 이벤트 코너(추첨 결과 SMS 통지)
장소 : 송도 트라이보울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3972



연수문화원 창작 동아리 작품 전시회

연수문화원에서 창작 동아리 회원들과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만든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기간 : 11월 30일(금)~12월 6일(목), 개막 12월 1일(토) 오후 2시
장소 : 연수구청 갤러리
관람료 : 무료
홈페이지 : 연수문화원 ㉡www.yeonsu.or.kr
문의 : 연수문화원 ㉠821-6229

학산생활문화센터 인문학 콘서트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 낭송, 철학 낭송, 밴드 연주, 시민 합창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신청 : 전화 및 방문
관람료 : 무료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인천여성복지관 내년도 제1기 수강생 모집

인천여성복지관에서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수강할 2019년 제1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 2019년 1월 7일(월)~3월 23일(토)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남성 포함)
신청 : ㉡women-center.incheon.go.kr에서 선착순 접수
신청 기간 : 12월 19일(수)~2019년 1월 14일(월)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440-6540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복 + 토크콘서트’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일시 : 12월 8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접수 기간 : 11월 12일(월)~마감 시까지
관람료 : 전석 초대
접수 : ㉡www.enticket.com 또는 ㉠1588-2341

하품영화제 ‘잇다’ 개최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영화를 감상하고 전문가가 직접 해설을 하는 하품영화제 ‘잇다’를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18일(화) 오후 4시, 7시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료 : 무료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866-3993

행복한 황혼을 위한 특강

청라호수도서관에서 하지은 강사를 초청해 황혼기 스트레스 관리 및 상실감 치유 등 행복한 황혼을 위한 교육 특강을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대상 : 성인 20명 선착순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563-8125

2019 미추홀구 베트남(하노이)-태국(방콕) 시장개척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미추홀구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태국·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업체
혜택 : 종합상담회 개최 관련 경비, 항공비
장소 : 베트남 하노이시, 태국 방콕시
파견 기간 : 2019년 2월 25일~3월 2일(4박 6일)
신청 기간 : 12월 7일(금)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bizokincheon.go.kr)
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①260-0631~2

박물관 주말 교육 프로그램

검단선사박물관은 자녀 동반 가족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톡톡톡! 알록달록 이야기 가방/우리 동네 과거 여행

일시 : 12월 15일 오전 10시~12시
대상 : 톡톡톡! 알록달록 이야기 가방 : 6세~초등학생 자녀 동반 가족
우리 동네 과거 여행 : 초등학교 3~6학년
참가비 : 각 5,000원
신청 및 문의 : 검단선사박물관 ①440-6798, ④sunsa.incheon.go.kr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승진, 채용 등 인사 청탁에 대한 채용 비리를 신고 받습니다.

특별집중 신고기간 : 11월 6일(화)~2019년 1월 31일(목)
신고 상담 : 국민콜 ①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 ①1398
홈페이지 : 청렴신문고 ④1398.acrc.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①1398

미추홀도서관 ‘띠에라 공연’

미추홀도서관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퍼포먼스 예술로 재해석한 년버벌 퍼포먼스 ‘띠에라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 12월 8일(토) 오후 3시~4시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료 : 무료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440-6665

인재혁명 시대, 돌파형 인재가 온다



초인재(超人材)
저자 김도현
244쪽 1만4,000원
퍼넌곳 생각의 날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이 책 ‘초인재’는 과거와는 다른 인재 유형으로 초인재를 제시합니다.
과연 초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저자는 미래형 인재상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청년들에 주목한다. 이들은 입사와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등한 조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들은 샐러리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었다. 신입사원들끼리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해 CEO가 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저자는 미래형 인재 초인재(超人材)의 가장 큰 특징은 ‘돌파형 인재’라고 말한다. 이들은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되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애를 뛰어넘는다. 초인재가 지닌 일과 삶에 대한 태도는 산업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든 그 중심을 돌파할 기준이 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초인재’ 저자 강연회
일시 : 12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1실 /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440-6665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행복을 나눕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김은율(남아)
2018년 8월 19일생·계양구

부모의 바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천사, 은율아.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성장하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김이든(남아)
2018년 2월 20일생·서구

부모의 바람
“아들! 엄마 아빠의 바람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인성, 셋째는 소신을 갖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사랑한다! 인천둥이 파이팅!!!”



조하준, 조하윤(남여 쌍둥이)
2018년 1월 3일생·연수구

부모의 바람
“선물처럼 다가온 하준아, 하윤아! 너희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특별하단다. 사랑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주세요.



홍유아(여아)
2017년 9월 12일생·미추홀구

부모의 바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유아야! 엄마, 아빠도 너희가 자라는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잠깐! 우리 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설치합니다.

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인천 여성외곽장에 공공형 키즈 카페 1호점인 ‘광장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키즈 카페 광장 놀이터는 어린이 무료 입장과 보호자 평일 기준 2,000원으로 요금이 저렴합니다. 시는 내년부터 연차별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키즈 카페가 부족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①440-2872



2018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2년 연속 수상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2019년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03
MARCH

Retro? Newtro!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미소
화보 2018 봄
커버스토리 인천여관X루비살롱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도시 재생 성공 사례들
99주년 3·1절 만국공원과 13도 대표자 회의
인천 VS 세계 도시 송도 센트럴파크 VS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인생 2모작 노인 일자리
브랜드 인천시 캐릭터
얼굴 좀, 봅시다 아프리카 목공소·철공소 대표 김영수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인천창영초등학교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철학을 팔다 무인양품(MUJI)
모닝 커피 한잔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손장원
인천 사는 나무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04
APRIL

Retro? Newtro!
잇다스페이스



인천미소
봄 자전거 여행 웅진군 산·사·모도
커버스토리 잇다스페이스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① 인천 원도심의 재생 방향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대교 VS 중국 수통대교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반려견 놀이터 / 유기견 보호
심정2구역 이야기 열우물 연가^{戀歌}
얼굴 좀, 봅시다 싱어송라이터 강현구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인천대공원 벚꽃터널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철학을 팔다 러쉬
인천 冊 포토에세이집 몽^夢땅 인천
모닝 커피 한잔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박인옥
인천 사는 나무 소이작도 검쟁나무

05
MAY

Retro? Newtro!
고진오 화실



인천미소
푸른 인천 인천 녹색 종주길
커버스토리 고진오 화실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② 인천 원도심의 재생 방향
특집 오월은 우리들의 세상 원도심의 아이들
인천 VS 세계 도시 청라국제도시 VS 샌안토니오
all_location_incheon 드라마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강화 방문의 해 타시거 버스
얼굴 좀, 봅시다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디자이너 조유미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영종 씨사이드파크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가치를 만들다 프라이탁
모닝 커피 한잔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유영이
인천 사는 나무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06
JUNE

Retro? Newtro!
스페이스 빔



인천미소
한반도의 봄 유월 풍경 - 민통선 섬마을은 지금 -
DMZ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숲 체험 인천대공원 산림 치유
커버스토리 스페이스 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③ 스마트 포용도시 인천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항 VS 로테르담항
인천 경제 인치너 카드
얼굴 좀, 봅시다 '별별' 인천을 담은 사진가 오인영
보호의 달 특집 인천의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현충시설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인천 녹색 종주길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스토리를 팔다 고디바
모닝 커피 프리랜서 방송인 조현정
인천 사는 나무 월미공원 평화의 어머니 나무

07
JULY

Retro? Newtro!
조양방직 -
신문리 미술관



인천미소
인천, 새로운 시작 민선 7기 출범 - 시장이 걸어온 길 -
주요 공약 - 시민 메시지
커버스토리 조양방직 '신문리 미술관'
여름엔, 인천 섬 덕작·소야도 연도교 개통 -
덕작·소야도 명소
여름밤 루프톱에서 무더위를 날리다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VS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얼굴 좀, 봅시다 경계에 꽃피울 '신여성', 유영이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컬러링 인천 대이작도 '섬마을 밴드음악축제'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놀이가 되다 크룩스
모닝 커피 한잔 문화 칼럼니스트 홍수경
인천 사는 나무 교동도 봉소리 느티나무

08
AUGUST

Retro? Newtro!
신포동 수제 맥주 양조장



인천미소
커버스토리 신포동 수제 맥주 양조장
원도심과 신도시의 공존 전문가 제언
여름 에너지 충전 익스트림 스포츠
인천 VS 세계 도시 송도컨벤시아 VS
샌즈 엑스포·컨벤션 센터
비전 인천 마이스 산업
인천 즐기기 버스킹(Busking)
일자리 지원 잡스(Job's) 인천
얼굴 좀, 봅시다 인천 '모던 보이' 악사^{樂士} 이승묵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어린이 로봇 캠프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종교가 되다
할리데이비슨과 호그
모닝 커피 한잔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사무국장 편원혁
인천 사는 나무 덕적도 진리 해변 소나무 군락

09
SEPTEMBER

Retro? Newtro!
초록한의원 -
이십세기약방



인천미소
가을, 근대 문학 기행 한국 노동 문학의 중심, 인천
비전 인천 인스로드
도시공·감, 재래시장의 변신 - 원도심의 사람들
커버스토리 초록한의원 - 이십세기약방
문화 콘텐츠 1인 방송
인천 VS 세계 도시 배다리 현책방거리 VS
영국 헤이온와이
얼굴 좀, 봅시다 'ON-AIR'는 나의 에너지, 조현정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추석 달맞이 명소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어둠 속에 빛을 주다 콜맨
모닝 커피 한잔 시인, 육필문학관장 노희정
인천 사는 나무 남동구 간석동 향나무

10
OCTOBER

Retro? Newtro!
대명헌 - 소금빛 서점



인천미소
커버스토리 강화도 남문한옥 '대명헌' - 소금빛 서점
민선 7기 100일 주요 성과와 행보 / 시민 인터뷰
소통의 시대 공유 공간
글로벌 인천 의료관광 도시
비전 인천 MICE 인재육성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 차이나타운 VS
뉴욕 차이나타운
얼굴 좀, 봅시다 경인방송 PD 안병진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부평풍물대축제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익숙함이 되다 샘표
인천의 아침 인천을 사랑한 바다
인천 사는 나무 강화도 마니산 소사나무

11
NOVEMBER

Retro? Newtro!
코스모 40



인천미소
특집 '아날로그의 반격'
민선 7기 주요 정책 방향
시민 참여 테마여행상품
커버스토리 대공간 '코스모 40'
인천 로케이션 인천국제공항, 드라마 '여우각시별'
인천 VS 세계 도시 아트센터 인천 VS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얼굴 좀, 봅시다 화가가 된 약국집 막내딸 고제민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시민시장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혁신을 갖고 놀다 레고
인천의 아침 K팝 뿌리, 인천 음악 클럽의 부활
인천 사는 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02
FEBRUARY

Retro? Newtro!
인천영상위원회



인천미소
트렌디한 공간 부평 거리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KTX로 인천에서 평창까지
커버스토리 인천영상위원회
인천 VS 세계 도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VS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
알아두면 편리해요 도서관 별별 서비스
설 특집 전통 있는 가문
얼굴 좀, 봅시다 문화 기획자 장한섬
문화 캘린더
시정 뉴스
의정 뉴스
컬러링 인천 월미공원
Info Box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문화가 되다 스타벅스
모닝 커피 한잔 인천도시역사관장 배성수
인천 사는 나무 석모도 보문사 향나무

인천 인구 300만, <굿모닝인천> 300호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인천공보를 간행함은 시행정의 내용을 공표하고 전달하는 한편 시민들의 중성(여론)과 여망을 취급할 것은 물론이요, 시의회의 의사의 기록과 의원 제씨의 활동상황이며 그들의 의견을 발표하여 시민제위가 잘 알도록 할 것이며, 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상호간의 지식을 계몽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도 또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仁川公報> 1호, 1953년 1월 10일자 1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1월, 인천시는 <인천공보>란 인쇄 매체를 창간한다. 타블로이드 판형 4페이지로 제작한 광복 이후 최초의 ‘인천 시정 소식지’였다. 표양문 인천시장을 발행인으로, 최병환 부시장을 편집인으로 각각 내세운 주간지 <인천공보>는 시정 소식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정치·경제·사회 뉴스는 물론이고 칼럼, 시·콩트 등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당시 편집에 참여했던 김양수(85) 문학평론가는 “난리(한국전쟁)통에 정보에 주린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개항과 양 관역정>의 저자 최성연 선생이 편집책임자로 앉으면서 그는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을 지낸 석남 이경성 선생과 함께 <인천공보>를 제작했다.

‘미 장병들, 고아 위한 성탄 파티’(1953. 1. 17.), ‘저울질 속여 먹던 악질 상인 5명 적발’(1953. 8. 12.), ‘쥐잡이 시행, 인천에서 10만 마리 잡아’(1955. 6. 13.), ‘배다리에 공동변소 설치’(1956. 12. 21.) 등 <인천공보>에선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1954년 11월 27일 판형을 블랭킷판으로 전환, 시민들과 소통하던 <인천공보>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며 <재건인천>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후 <약진인천>·<약동하는 도시 인천>(1962), <시보>(1970), <월간시정>(1989)으로 개제하며 발행하던 이 시정 홍보 매체가 한 단계 도약한 시기는 1994년 1월이다. 신문 형태에서 <내고장인천>이란 제호의

‘잡지’로 바꾸고 콘텐츠를 확장한 것이다. 이때 6,000부를 제작해 반상회를 중심으로 배포하던 부수도 1만5,000부로 늘려 공공장소에 배포하기 시작한다. <굿모닝인천>이란 싱싱하고 발랄한 제호를 갖게 된 때는 2001년 3월이다. 그렇게 17여 년간 인천 시민들에게 반가운 아침인사를 드린 <굿모닝인천>이 300호를 맞았다. 잡지의 역사는 25년이지만 인천시정 홍보매체의 역사는 65년을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왔다.

<인천공보>가 탄생한 시기는 인천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던 때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전쟁 전후, 피란민을 비롯해 인천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난하던 시절, 군수·원조 물자가 모이는 인천항엔 ‘먹을 것’이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도 가까운 도시가 인천이었다.

본격적인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며 1960년대부터 조성된 인천의 산업공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서해안에 접한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사람들이 인천으로 올라와 토박이들과 어우러져 살았고, 자식들을 인천 토박이로 낳고 길렀다. 지금의 인천은 어떠한가. 국제도시에 정착하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늘 그랬듯 해불양수의 도시, 포용의 도시,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중이다. 1883년 개항 전 ‘1개의 초라한 어촌과 15개의 오두막’(G.N. 커즌)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 인구 300만 명이 더불어 사는 대도시로 성장한 것은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방증이다. 도시나 가정이나 사람들이 북적대면 좋은 공간이고, 길한 곳이다.

300호를 맞은 <굿모닝인천>은 시와 시민 간, 시민과 시민 간 ‘격의 없는 소통과 공감’을 꿈꾸며 301호를 준비하는 중이다. 65년 전 <인천공보>가 그랬듯이 생생한 인천 역사를 기록하고 인천의 문화를 발굴, 확장하는 것도 <굿모닝인천>의 몫일 터이다. 300만 인천특별시민과 손잡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하여 <굿모닝인천>이 간다.

남동구 구월동 회화나무



500년 전 나무가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은 바닷물이 드나들던 자리.

“바다가 육지라면...”

나무의 소원은 그렇게 서러웠으리라.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나무는 드넓은 바다의 마음을 닮았다.

구불구불 유연하게 사방으로 뻗은 가지는

끝없이 토해내는 우리의 푸념을 받아내어

용광로 같은 낙조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다시 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바라보라 가리키는 건,

그의 고향, 바다 수평선 너머 찬연히 떠오르는 붉은 태양.

나무 높이 : 30.5m / 나이 : 500년
특정 : 잡귀를 물리치는 마을의 당산목이자 자식의 학문적 출세를 비는 학자수(學者樹). 한때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지역인 구월동 아시마드선수촌 근린공원 내에 있는 보호수다.